

신성장 사업에 한발 더... 전세계 석학 초청 AI 현황 공유

삼성 AI 포럼 2019

교수·전문가 등 1700명 참석 예정
딥러닝 주요 주제로 발표·논의
'온 디바이스 AI' 통역 기술 발표

삼성전자가 전세계 석학들을 불러모아 인공지능(AI)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4일부터 5일까지 '삼성 AI 포럼 2019'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째날은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주관으로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둘째 날은 삼성리서치 주관으로 삼성전자 서울 R&D캠퍼스에서 각각 진행된다.

AI포럼은 전세계 AI 석학들을 초청해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미래 혁신 전략을 모색하는 기술 교류 행사다.

3번째인 올해 행사에는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와 교수, 학생 등 17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첫날에는 딥러닝을 주요 주제로 발표와 논의가 이어진다. 최고 권위자들이 참여해 딥러닝 기반 세계 이해, 자율형 시스템 등 더욱 진화되고 확장된 인공지능 기술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삼성전자 부회장인 김기남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 AI 포럼 2019'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연사로는 캐나다 몬트리올대학교 요슈아 벤지오 교수와 미국 UC버클리대학교 트레버 대럴 교수, 미국 뉴욕대학교 조경현 교수 등이 참석한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몬트리올 AI 랩장인 몬트리올대학교 사이먼 라코스테 줄리앙 교수도 참여했다.

삼성전자 김기남 대표이사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AI 기술은 이미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오늘 세계적인 연구자들과 함께 AI 기술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하는 자

리로 만들자"고 말했다.

요슈아 벤지오 교수는 '딥러닝에 의한 조합적 세계 이해'라는 주제로 메타러닝과 강화 학습 등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세계를 이해하기 딥러닝 분야 핵심 기술들을 제안했다.

트레버 대럴 교수는 '자율형 시스템을 위한 딥러닝 기반 적응 및 설명'을 주제로, 시스템이 예측하지 못한 복잡한 상황에 처했을 때 스스로 분석하여 판단하는 기술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을 소개했다.

조경현 교수는 '신경망 기반 문장 생



삼성전자는 '삼성 AI 포럼 2019'를 개최하고 인공지능 분야 전세계 동향과 최신 기술을 공유했다. /삼성전자

성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주제로 기계 번역시 문장 생성 속도를 높이는 기술을 선보였다.

사이먼 라코스테 줄리앙 교수는 '생성적 적대신경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주제로 고차원 데이터에 생성적 적대신경망이 적합한 이유와 최적화 이론을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온 디바이스 AI' 통역 기술도 나왔다.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수행하는 내용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7년에 기계 번역, 2018년에 여러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는 '엔드 투 엔

드' 음성인식 기술을 시연한 바 있다.

둘째날에는 미국 워싱턴대학교 노아 스미스 교수와 카네기멜론대학교 압히나브 굽타 교수가 기조연설을 맡았으며, 영국 에든버러대학교 바이샬 벨 교수와 미국 뉴욕대학교 조안 브루나 교수가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

오후에는 '비전과 이미지'와 '온디바이스, IoT와 소셜'을 주제로한 2개 트랙이 동시에 진행된다. 전세계 주요 석학과 삼성전자 연구원 등이 각자 딥러닝과 관련한 현안과 기술을 살펴볼 예정이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구자열 "R&D 혁신으로 디지털 전환 박차"

(LS그룹 회장)

연구개발 성과공유회 'LS T-페어'
제조업에 AI·빅데이터 등 기술 접목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R&D와 혁신으로 한·일 무역 갈등을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4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 9월 그룹의 기술 올림피아라 불리는 연구개발 성과공유회 'LS T-페어'에서 격려사를 통해 이같이 밝힌 이후 LS그룹이 전사적으로 R&D 혁신에 매진하고 있다.

구 회장은 미·중 무역 전쟁과 한·일 경제 갈등 등 수출과 통상 리스크가 격화되는 가운데, 기술 자립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는 의미에서 이같이 당부했다는 해석이다. 주력 사업 분야는 후발주자와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대응해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는 절박감도 있었다는 전언이다.

이같은 변화는 지난해 T-페어부터 감지됐다. LS전선은 생산 제품에 IoT를 적용해 실시간 위치·재고·노란 여부 등의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LS산전은 소비자들이 실시간 태양광과 ESS 사용 현황 및 제품 상태 등을 모니터링하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LS엠트론은 자율 주행 트랙터 및 농업용 드론 등 스마트 농업 솔루션 등의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

과거 주력 사업 분야 오랜 연구 과제를 주로 내세웠던 것과 달리,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미래 기술들로 대다수 전시장을 채워 변화를 시도한 것이다.

구 회장이 주도한 변화다. 구 회장은 2015년부터 'R&D 스피드업'과 '디지털 전환'을 그룹의 연구개발 및 미래 준비 전략으로 강조하며 전통적인 제조업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T페어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LS그룹

분야에 AI(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에너지 기술을 접목해 디지털 기업으로 변신을 주문해왔다.

지난 1월부터는 지주사 내에 미래혁신단을 신설하면서 구자은 LS엠트론 회장도 가세했다. '디지털 전환' 과제 실행 촉진과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인재 양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계열사별로는 LS전선이 업계 최초로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재고 관리 시스템 사업을 추진 중이다.

LS산전은 청주 1사업장 G동에 부품 공급부터 조립, 시험, 포장 등 전 라인에 걸쳐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스마트 공장을 운영 중이다. 1일 생산량을 기존 3배 가까이 늘리고 에너지 사용량도 60% 이상 절감했으며, 불량률도 600만분의 1로 크게 줄였다.

니꼬동제련은 온산제련소에 ODS를 추진 중이다. 생산 전 과정을 통신으로 연결해 공정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이다.

LS엠트론은 실시간 생산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및 설비 예방 보전 시스템(CMMS) 활용 등 디지털 전환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김재용 기자

3년만에 얼굴 바꾼 그랜저... 사전예약 돌입

현대차 4가지 엔진 라인업 동시 출시
2세대 스마트자세제어 시스템 적용

올 하반기 최대 기대작인 현대자동차의 신형 그랜저가 사전계약에 돌입했다. 현대차는 프리미엄 세단 더 뉴 그랜저의 사전계약을 전국 영업점에서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더 뉴 그랜저는 2.5 가솔린, 3.3 가솔린, 2.4 하이브리드, 3.0 LPI 등 총 네 가지 엔진 라인업으로 동시에 출시된다.

현대차 최초로 적용한 공기청정시스템은 미세먼지 감지 센서와 마이크로 에어 필터를 적용해 차량 내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준다. 2세대 스마트 자세제어시스템은 장시간 주행 시 러머 서포트(허리 지지대)를 자동으로 작동시켜 척추 피로를 풀어주는 사양으로 현대차 최초로 적용됐다.

또 후진 주차 시 후방 장애물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브레이크를 제어해 주는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PC A-R)도 장착됐다. 현대차 최초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경우 마주 오는 차량



현대차 '더 뉴 그랜저'

과 충돌하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해주는 전방 충돌방지 보조-교차로 대향차(FCA-JT) 기술도 적용됐다.

이 외에도 ▲후측방 모니터(BVM) ▲안전 하차 보조(SEA)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RSPA) 등도 적용됐다.

이번에 출시되는 더 뉴 그랜저는 비례, 구조, 스타일링, 기술의 4가지 기본 요소의 조화를 지향하는 현대차의 새 디자인 방향성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를 적용하는 동시에 플래그십 세단이라는 정체성에 걸맞은 디자인 혁신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전장이 4990mm로 60mm 늘어나

차체가 웅장해졌다. 기존보다 40mm 늘어난 휠베이스(축간거리)와 10mm 늘어난 전폭은 플래그십 세단이라는 명칭에 부합하는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한다.

더 뉴 그랜저의 판매 가격은 엔진 별로 ▲2.5 가솔린 3294만~4158만원 ▲3.3 가솔린 3578만~4399만원 ▲2.4 하이브리드 3669만~4539만원 범위 내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트림 별 가격은 ▲프리미엄 3294만~3719만원 ▲익스클루시브 3681만~4062만원 ▲캘리그래피 4108만~4539만원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

/양성운 기자 ysw@

대한항공 '기내 안전비디오' 전면개편... 뮤직비디오 형태로 제작

대한항공이 전 노선에 새로운 기내 안전 비디오를 적용한다.

대한항공은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인 에스엠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기내 안전비디오를 뮤직비디오 형태로 전면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항

공은 이달 4일 오전 7시 45분에 출발하는 인천발 마닐라행 KE621편을 시작으로 슈퍼엠의 뮤직비디오 형태로 제작한 새로운 기내 안전비디오를 전 노선 모든 항공기에 적용했다.

기내 안전비디오는 수하물 보관, 비행

중 사용금지 품목, 전자기기 제한, 기내 금연, 좌석벨트 사인 및 착용, 비상구 관련 내용, 객실 기압 이상시 행동요령, 구명복 착용 방법 등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들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하는 사항을 담은 영상이다. /김수지 수습기자 sjkim2935@